NH투자증권

전략 인사이드/경제

Hard Data 이후의 매크로

일부 합의가 되더라도 미국 평균 관세율은 10%P 이상 인상될 전망. Soft Data 급락이 7월~8월 Hard Data 둔화로 반영되면서 Fed의 압축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 한국은 VC 투자 확대 및 4분기 경기 저점 통과 예상

Economist 안기태
02)768-7205, kt.an@nhqv.com

미국 정부는 현실적으로 긴축을 하지 못하고, Fed는 압축적인 기준금리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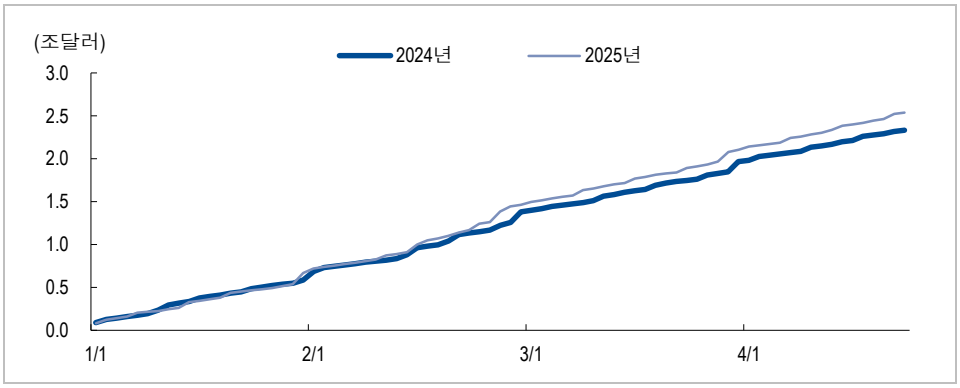
시간이 지나면서 머스크의 미국 재정적자 목표는 줄었다. 대선 전에는 2조 달러, 대선 직후에는 1조 달러, 최근에는 1,500억 달러 감축을 말했다. 그리고 사임했다. 현실적으로 미국 정부가 지출을 줄이지 못한다. 실제로는 돈을 더 풀어서 부채를 녹이는 쪽에 가깝다. 올해 이후 5월 초까지 미국 재무부 지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명목 GDP 성장률(5%)보다 높은 수치다. 재정적자를 못 줄이는 것이 확인되면서 미국 자산(국채)에 대한 신뢰가 다소 약화될 가능성은 있다.

3월~4월 미국 Soft Data(Capex 계획, 신규주문) 둔화가 시차를 두고 7월~8월에 발표되는 Hard Data(자본재 주문, 수출입, 고용)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 결과, 지표 둔화를 확인한 후에 Fed가 압축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정부지출 확대와 Fed 기준금리 인하로 글로벌 유동성은 증가할 것이다.

한국 경제의 대표적인 두 가지 문제를 수습하는 방향으로 정책 운용

첫째, 한국 가계 금융자산은 금융부채 대비 2배다. 일본은 5배다. 일본과 비교할 때, 고령화 대비가 부족하다.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산업경쟁력 약화다. 30년 만에 대중 무역수지는 적자로 돌아섰고 생산성 증가율은 정체 상태다. 정부지출 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노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2024년 벤처투자 금액은 3년 사이 25% 감소했는데, 올해 하반기 이후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미국 정부지출 증가율 8%로 추정



자료: 미국 재무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I. Hard Data 이후의 매크로

관세 인상으로 성장률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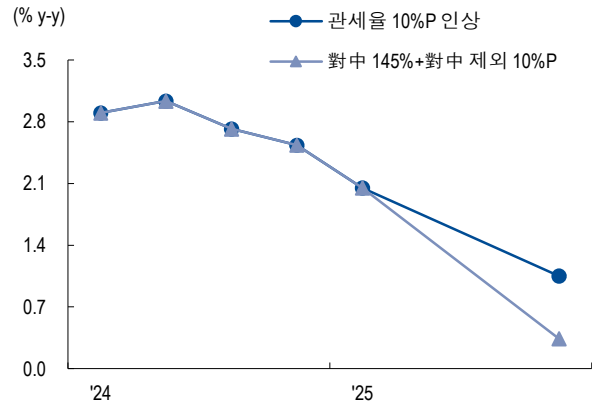
장기 경로에도 영향

트럼프 정부가 4월 초에 발표한 국가별 관세율을 적용하면,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8%에 이른다. 이 경우 2025년 4분기 미국 성장률은 0%에 근접한다. 성장률과 실업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오쿤의 법칙(Okun's law)을 대입하면, 미국 실업률은 5%에 근접한다(그림1,2 참조).

향후 추가 합의를 가정해도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높아지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관세율이 급등한 1930년대와 비교하면 통화정책은 전혀 다르다. 당시 Fed는 통화공급을 30% 줄였다. 반면, 미국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당시보다 3배 많다(그림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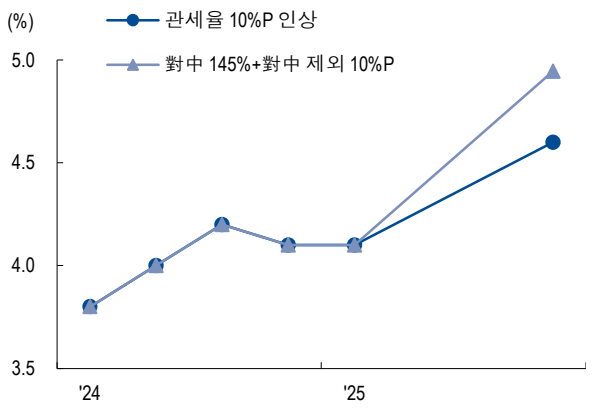
관세는 미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뒤집어 보면, 경쟁 압력이 줄어든다. 경쟁이 줄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관세가 일정부분 합의되더라도, 미국 GDP의 추세적인 궤적은 관세인상 이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판단한다(그림4 참조).

그림1. 미국 GDP 성장률 경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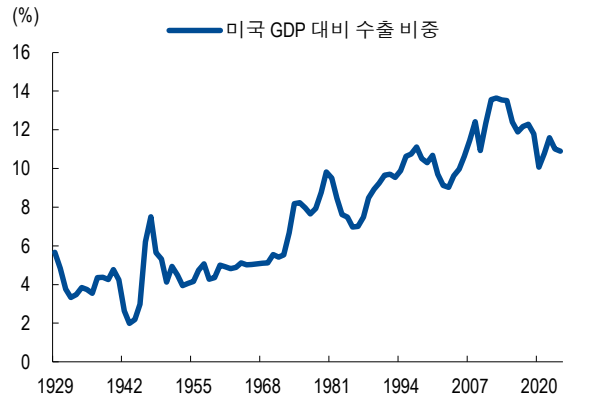
자료: 미국 경제분석국,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미국 실업률 경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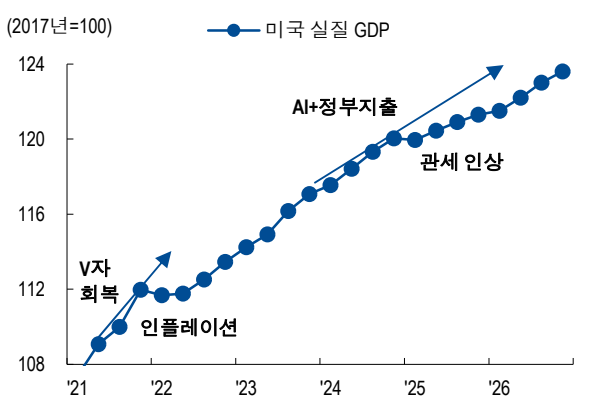
자료: 미국 노동통계국,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1930년대와 비교하면, 미국의 수출 의존도 높아짐



자료: 미국 경제분석국,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관세 인상→ 경쟁 약화→ 성장률 둔화



자료: 미국 경제분석국,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1981년 8월과 2025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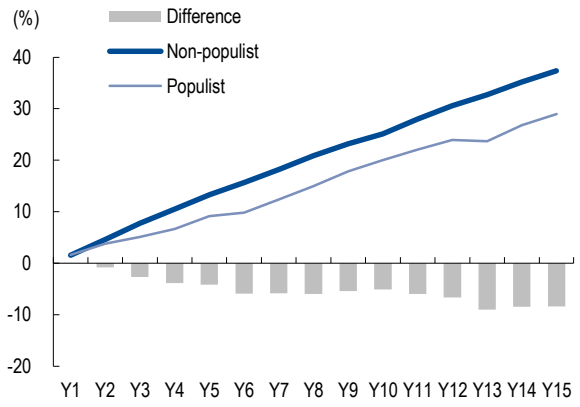
트리플 약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포퓰리즘 성향이 강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지난 100년간 주요국 사례를 보면, 포퓰리즘 성향이 강한 정부가 들어서면 장기적으로 GDP 성장 폭은 낮아졌다(그림5 참조).

미국 역사에서 포퓰리즘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시기는 1960년대 중반~1970년대 후반이 꼽힌다. 이때 사회복지 지출과 통화량 팽창이 두드러졌다. 미국 주가, 국채가격, 달러 세 자산이 모두 하락한 것은 이 시기에 발생했다. 2025년 4월에 S&P500 지수와 달러지수가 하락하고 10년물 국채금리는 상승했는데, 이런 현상은 1981년 8월 이후 처음이다(그림6 참조).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신호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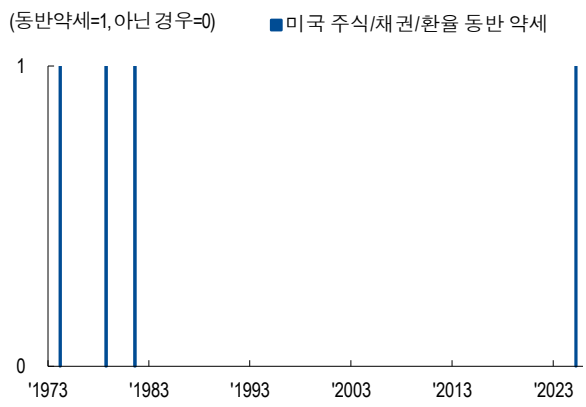
정책 불확실성이 걷히고 안정화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관세 인상으로 미국은 사실상 증세 조치가 시행된 셈인데, 정책 혼선으로 볼 수 있다. 1980년대 초반에도 감세(1981년 소득세율 인하)와 증세(1982년 세금 공제항목 축소)를 번복했다. 본격적인 채권 강세장으로 넘어가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다(그림7,8 참조).

그림5. 포퓰리즘이 강화되면, 해당 국가의 GDP는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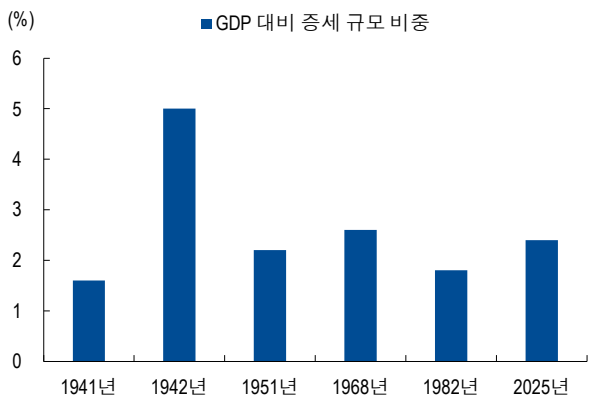
자료: Manuel, Moritz, Christoph,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6. 44년 만에 나타난 미국 주식/채권/환율 동반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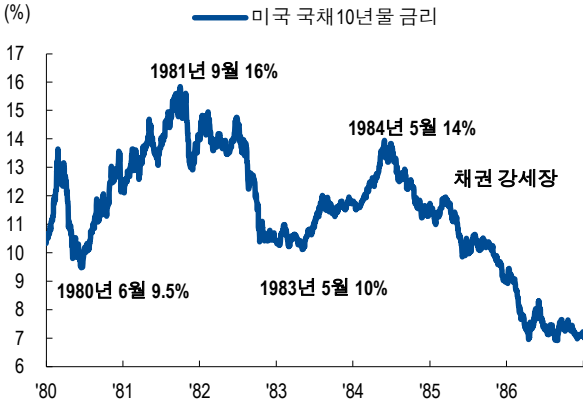
주: S&P500 5% 하락,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20bp 상승, 달러지수 5% 하락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 LSE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7. 관세는 사실상 증세 효과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8. 길게 보면, 혼돈에서 안정으로 가는 데에 시간이 걸림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7월에 Hard Data 둔화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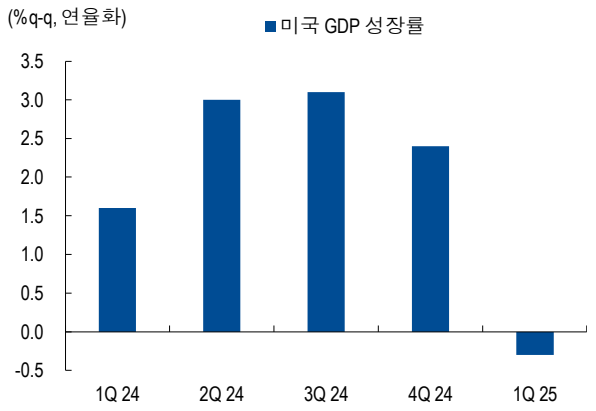
시차 소요

현재 미국 경제지표를 보면, Soft Data(심리지수)는 악화되고 있는 반면 Hard Data(금액)는 양호하다. 1분기 미국 GDP 성장률은 전분기대비(연율화) -0.3%를 기록했으나, Core GDP 성장률은 +3.0%를 기록했다. Core GDP는 민간소비와 투자를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Core GDP는 재고 증감과 순수입을 제외한 금액으로 GDP에 비해 변동성이 적고 추세를 확인하는 데 적합하다(그림9,10 참조).

GDP를 보는 관점에서 향후 쟁점은 두가지가 있다.
첫째, 순수입이 감소해서(=관세 인상 때문에 미리 수입이 급증해서) 1분기 GDP 성장률이 낮게 나왔다면 역으로 수입이 둔화되면 2분기 GDP 성장률은 높아질 수 있다. 내용은 나쁜데 숫자가 좋은 결과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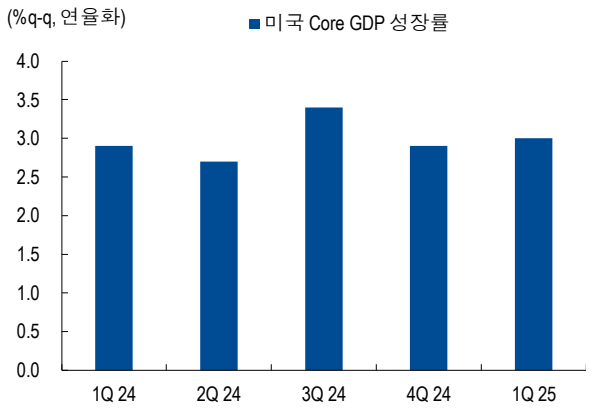
미국은 무역통계가 늦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확인에 시간이 걸린다. 아시아 주요국은 미국보다 무역통계가 빨리 발표되는데 4월 통계는 양호한 편이다. 무역주문 둔화를 감안할 때, 7월 초에 발표되는 미국의 5월 무역통계에서 수입 감소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그림11,12 참조).

그림9. 1분기 미국 GDP 성장률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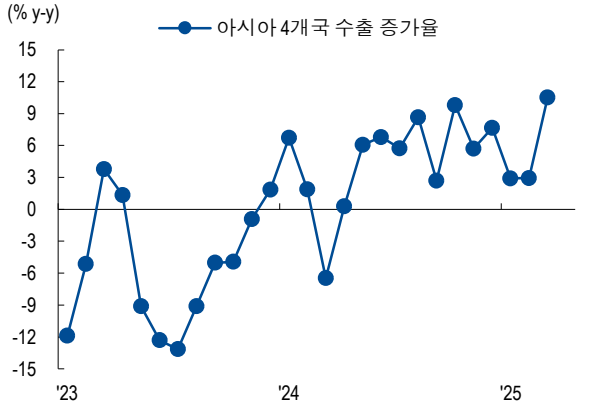
자료: 미국 경제분석국,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0. 1분기 미국 Core GDP 성장률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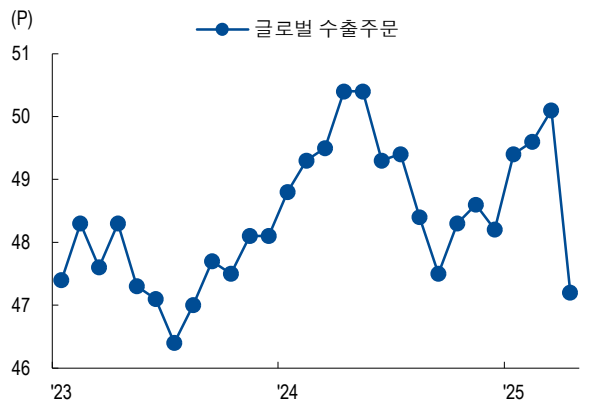
자료: 미국 경제분석국,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1. 아시아 수출(Hard Data) 증가율, 호조



자료: 주요국 통계청,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2. 4월 들어, 글로벌 수출 주문(Soft Data) 급감



자료: CEIC,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여름에 지표 둔화

고용/투자/수출

둘째, Core GDP가 둔화되는 것이다.
1분기 Core GDP는 여전히 견조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를 구성하는 소비와 투자가 2분기에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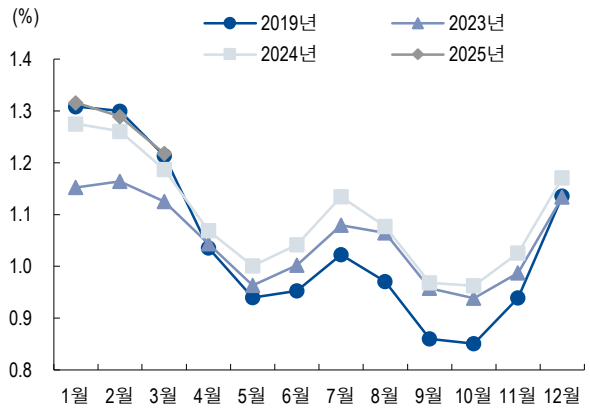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계획 설문조사 결과는 지난 3월부터 둔화되고 있다. 시차를 감안할 때, 올해 여름에는 실제 자본재 주문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그림13 참조). 미국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계절적으로 6월~7월에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그림14 참조). 경기가 둔화되는 와중에 계절성까지 가세하면, 올해 6월~7월 미국 고용지표가 빠르게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해당 지표는 7월 초에 발표된다.

종합하면, 올해 여름에는 미국 경제지표(투자/고용/수입) 둔화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전년대비 GDP 성장률이 1%에 근접하면 한국 수출은 역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그림15 참조).

그림13. Capex 계획 축소가 실제 자본재 주문 감소로 연결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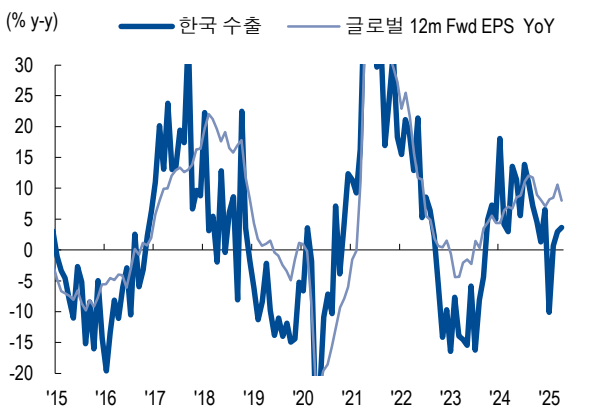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4. 월별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수당청구 건수 비율



자료: 미국 노동통계국,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5. 여름에 한국 수출 증가율 둔화 예상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LSE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압축적인 기준금리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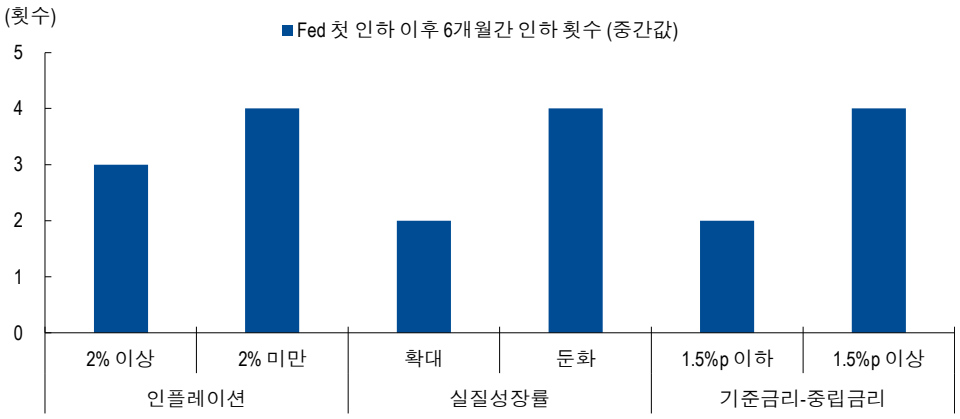
지표 둔화 직후

과거 Fed의 첫 기준금리 인하 이후 6개월 간 인하 횟수는 세 변수의 영향을 받았다.
첫째, 인플레이션이다. 관세에 따른 소비재 가격 상승을 감안할 때 6개월 뒤 미국 물가 상승률은 2%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둘째, 6개월 뒤의 실질 성장률은 지금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전년대비 기준).
셋째, 중립금리(경기를 부양하지도 훼손하지도 않는 적정한 기준금리)는 AI 관련 투자와 생산성 향상으로 2023~2024년에 상승했다. 현재 3% 초중반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관세 인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면 향후 중립금리가 상향조정되기 어렵다.

2024년과 비교하면 Fed 기준금리 인하의 걸림돌이 높지 않은 편이다(그림16 참조). 1차 무역전쟁이 발생한 2019년에는 압축적으로 3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시행했다(그림17 참조). 이후 경제지표는 돌아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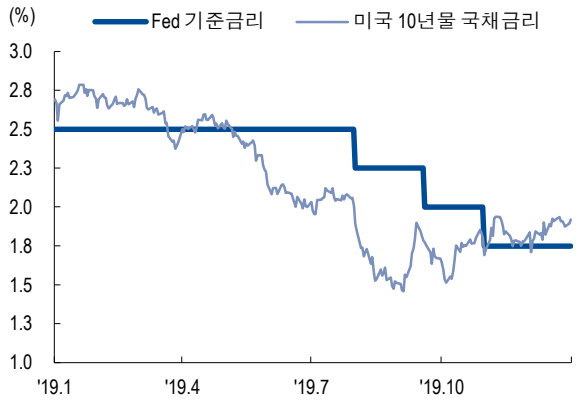
Fed 통화정책을 감안할 때, 향후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이 높아질 것이다(그림18 참조).

그림16. Fed 기준금리 인하의 세 가지 조건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7. 지금과 상황은 다르지만, 과거 Fed 압축적 인하 사례



자료: LSE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8.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

자료: 주요국 중앙은행,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미국 정부지출 증가율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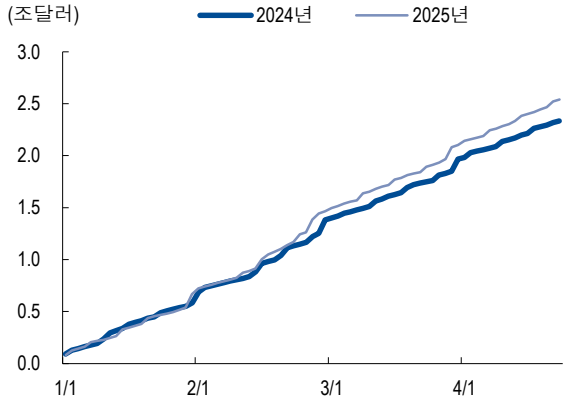
명목 성장률보다 높음

Fed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2023~2024년에 진행된 완화적인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에 정부 효율화로 재정적자 2조 달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선 직후에는 1조 달러가 현실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가장 최근에는 1,500억 달러라고 말했고 사임했다.

미국 재무부 현금잔고를 통해 유추하면, 올해 들어 미국 정부의 재정지출은 8%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명목 GDP 성장률(5%)보다 높다. 부처별로 보면, 국무부 지출이 20% 이상 감소했지만 정부지출에서 국무부의 비중은 크지 않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늘었다(그림19~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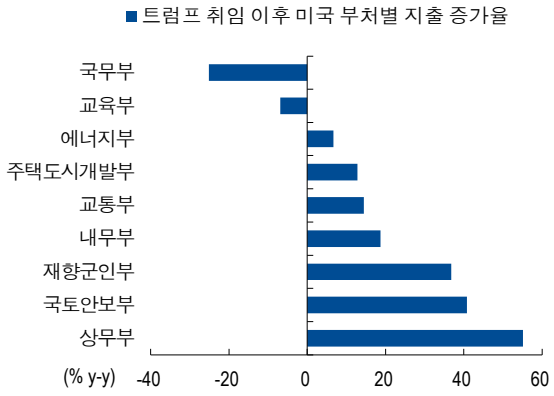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현실적으로 미국 정부가 지출을 줄이는 것이 어렵다. 재정적자/정부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긴축으로 재정적자를 줄이거나, 오히려 지출을 더 늘려 인플레이션으로 부채를 녹이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머스크 고문이 전자(前者)의 방식을 제안했지만 일단 실패했고 후자(後者)의 방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그림22 참조).

그림19. 올해 미국 정부지출 증가율 8%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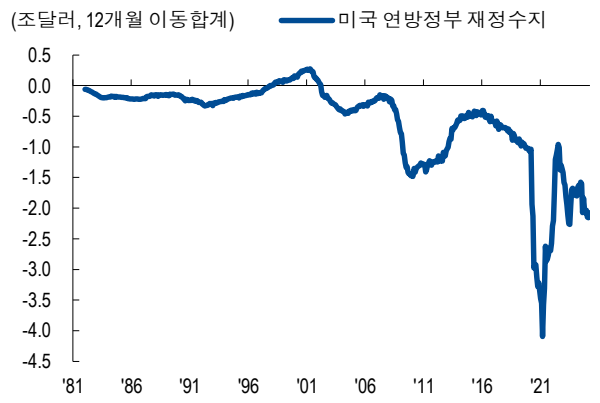
자료: 미국 재무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0. 국무부가 지출을 줄였을 뿐



자료: 미국 재무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1. 미국 재정적자 확대



자료: 미국 재무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2. 지출을 늘려, 부채를 녹이는 전략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 미국 재무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미국 재정지출 축소, 현실적으로 어려움

그것의 의미

둘째, 머스크 고문 사임으로 재정적자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이것이 미국 정부채권에 대한 신뢰 약화로 확산될 가능성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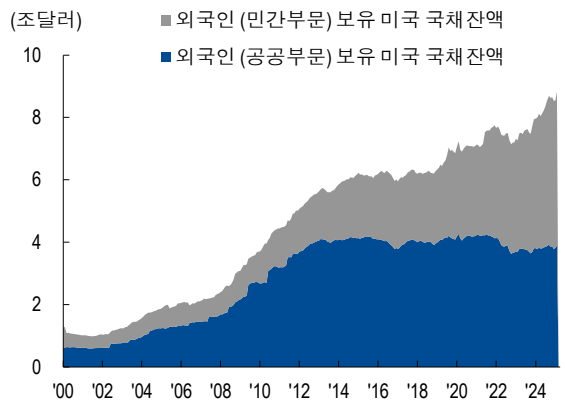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미국 장기채권을 중국이나 일본이 사도록 한다는 계획을 말했는데, 현실과 괴리가 있다. 이런 정책은 글로벌 정책공조가 활발할 때 가능하다. 주요국이 통화/재정정책을 거의 같게 움직인 2009년에 외국인이 보유한 미국 국채 잔액에서 공공부문의 비중은 80%였다. 반면, 지금은 40%다(그림23 참조).

미국 정부가 주요국 정부에서 미국 국채를 사도록 강제한다고 하더라도, 각국 정부가 미국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보다 낮아졌다. 트럼프 정부가 독일 정부에게 국채 매입을 강제할 수는 있어도, 독일 민간은행/보험사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 하락이 현실화되면, 본격적인 미국 채권 매입이 지연될 수 있다. 한국을 예로 들면, 2009년 초에 글로벌 경기가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려운 수준까지 떨어지자 주식 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었다. 그러나, 채권 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 것은 경기 회복세가 어느 정도 확인된 2009년 하반기 이후였다. 주식은 경기 저점에서 자금이 유입됐지만, 채권은 경제 안정을 확인한 후에 자금이 유입됐다(그림2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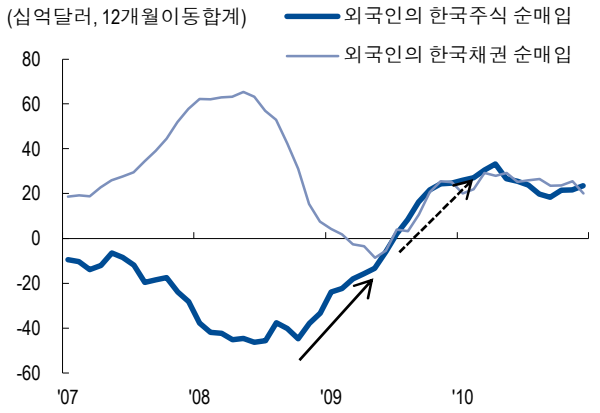
지금까지 미국은 그 자체로 가장 안정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악화되는 시점에 즉시 미국 채권으로 자금이 유입되었다. 그런데, 미국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 미국 경제나 재정상황 등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한 뒤에 외국인 채권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는 시장으로 바뀔 수 있다.

그림23. 외국 정부는 정체, 외국 민간의 미국 국채 보유 확대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4. 주식은 경기 저점에, 채권은 경제 안정 이후에



자료: 한국은행,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신뢰 약화로 미국 국채 가격 일부 낮아질 수 있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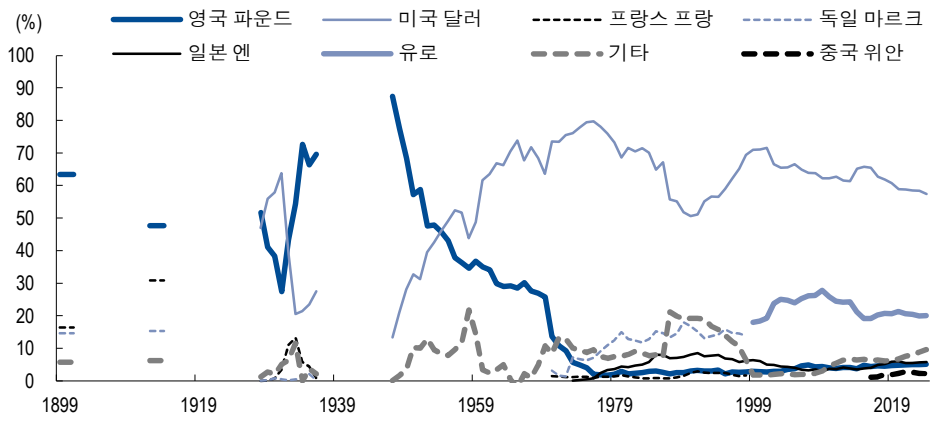
여전히 안전자산

미국에 대한 신뢰 약화로 미국 국채 가격이 예전보다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 실제로, 미국 10년물 국채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단기채권 대신 장기채권을 보유하는 데 대한 보상 비용)은 높아지는 추세다(=채권 가격 하락).

역사적으로 한 개의 기축통화가 아니라, 여러 개의 블록통화가 지속된 기간은 상당히 길다(그림25 참조). 변화가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글로벌 외채에서 달러 표시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919년 12%에서 1920년 44%로 1년 사이에 급증했다. 이런 것을 보면, 미래에 달러 대신 지역별 블록통화가 출현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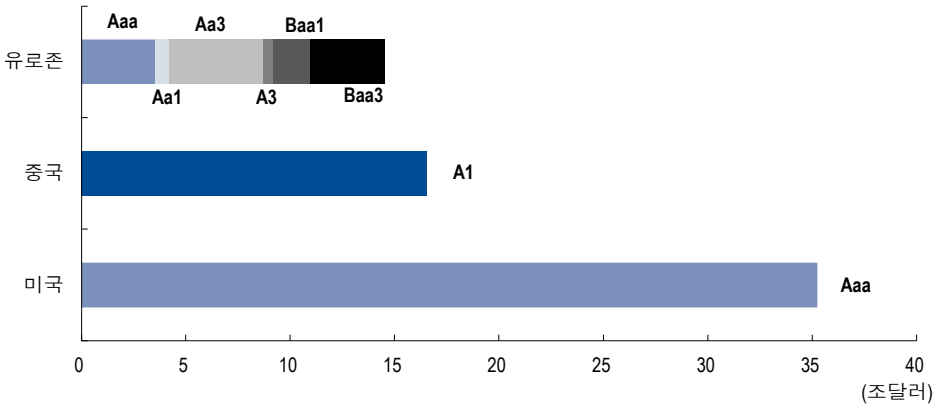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지금 당장은 달러를 대체할 기축통화가 출현하는 것도 어렵고 비슷한 등급의 블록통화가 출현하기도 어렵다. 무디스 기준으로 미국은 Aaa 표시 채권 발행 잔액이 가장 많은 국가다. 중국은 이보다 네 단계가 낮은 채권을 발행한다. 유로존 전체 채권 발행 잔액은 큰 규모지만, 미국과 같은 등급의 발행 잔액은 적다(그림26 참조). 달러와 미국 채권이 갖는 안전자산 지위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림25. 글로벌 외환보유고 구성 통화의 변화



자료: Eichengreen,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6. 미국 국채, 가장 신용도가 높고 유동성이 많은 시장



자료: 국제통화기금, 무디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중국도 지표 둔화

유동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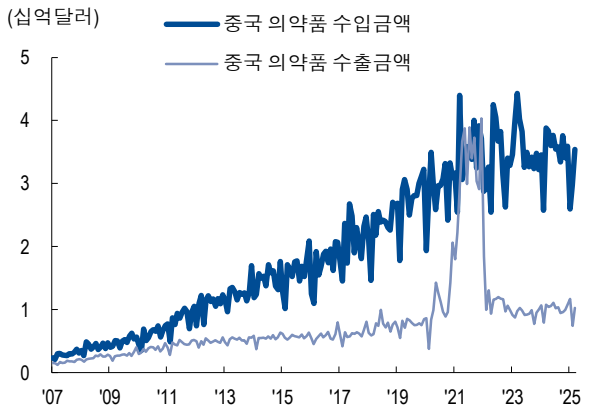
관세 인상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피해를 입힌다.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대두나 원유는 수입선을 바꿀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품목도 있다. 의약품에서 중국의 자립도는 아직 낮으며 해외수입에 의존한다. 중국의 알부민 수입 가운데 40%는 미국에 의존한다. 일부 치료제는 미국 이외 제품으로 대체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그림27 참조). 의약품 수입이 중국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으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다.

4월 들어 중국에서 출발해 미국에 들어가는 컨테이너 예약률이 감소했다. 지난 해 중국 무역수지는 1조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중 1,600억 달러는 외국기업에 의한 것이다. 관세 인상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이들이 중국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그림28,2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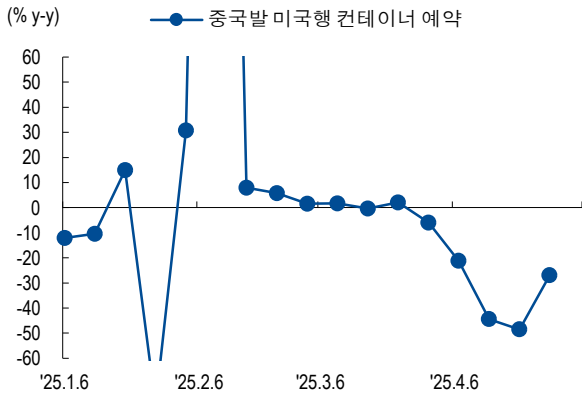
경기 둔화 압력을 감안할 때, 일정부분 부양정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의 Credit Impulse(GDP 대비 신용창출 비율)는 과거 흐름만 감안해도 올해 하반기 이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그림30 참조).

그림27. 중국 제약산업, 수입에 의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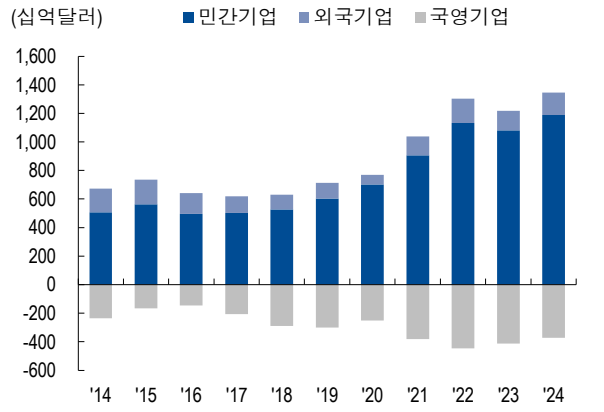
자료: CEIC,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8. 중국발 미국행 컨테이너 예약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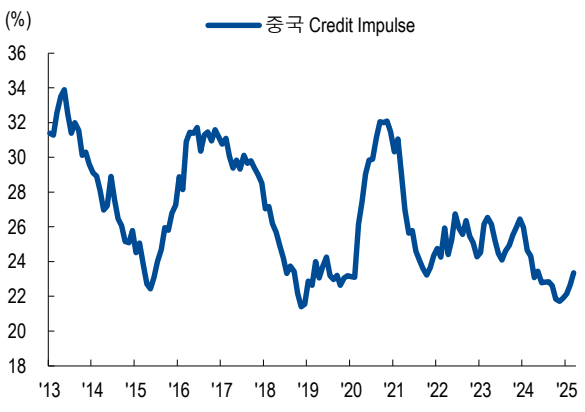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9. 중국 기업별 무역수지 분해



자료: Financial Times,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0. 중국 신용공급 증가율 확대될 전망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한국 경제의 문제 1) 산업경쟁력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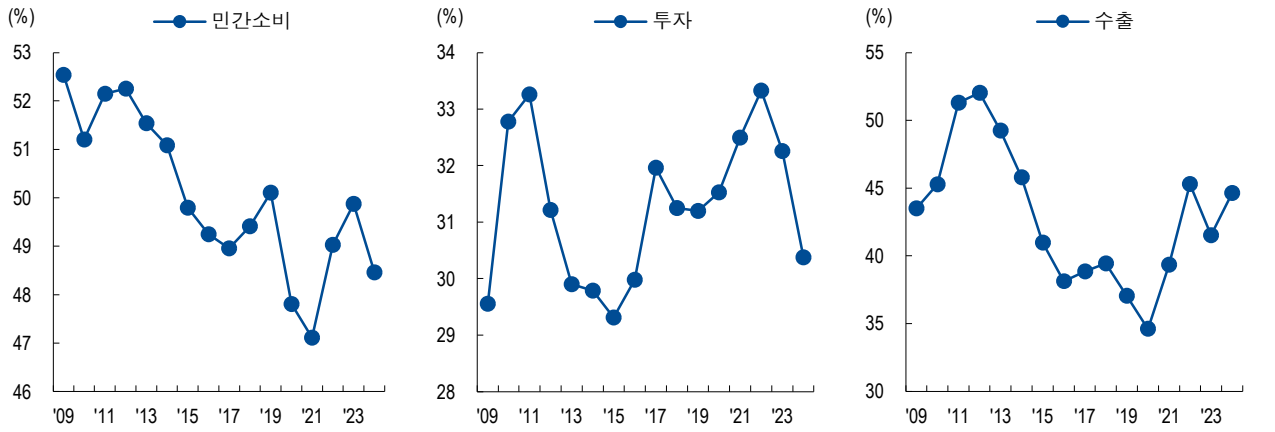
상당부분 중국의 추격

관세 인상을 제외해도 한국 경제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 두 가지를 꼽자면, 산업 경쟁력 약화와 가계의 고령화 대비 부족을 들 수 있다.

흔히, 한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투자 부족이 꼽히는데 GDP 대비 투자 비율은 지난 15년간 큰 변화가 없다. 효율성을 높이는 투자가 부족하다는 문제는 지적이 가능한데, 전체 투자 금액이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림3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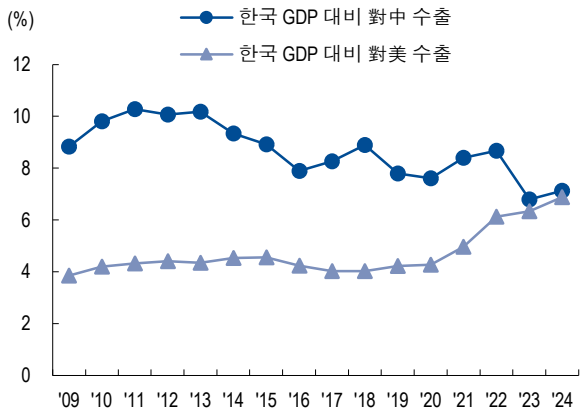
수출 의존도는 2020년 이후 늘어나고 있는데 지속성에 약간의 의문이 있다. 한국의 대中 무역수지는 1993년부터 2022년까지 흑자를 기록하다가 2023년 이후 적자로 전환되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중국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한국 중간재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그림32,33 참조). 중국의 산업용 로봇 생산이 급증하는 것을 보면, 중국이 고령화/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제조업 효율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산업경쟁력이 중국에 뒤쳐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그림31. 한국 GDP 대비 민간소비, 투자, 수출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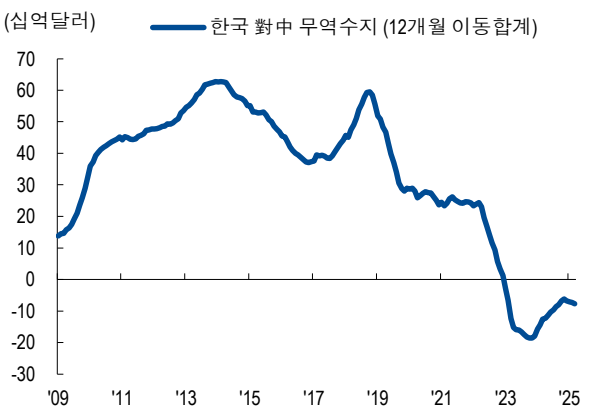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2. 한국의 미국/중국 의존도 확대



자료: 한국은행,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3. 한국의 對中 무역흑자 30년, 종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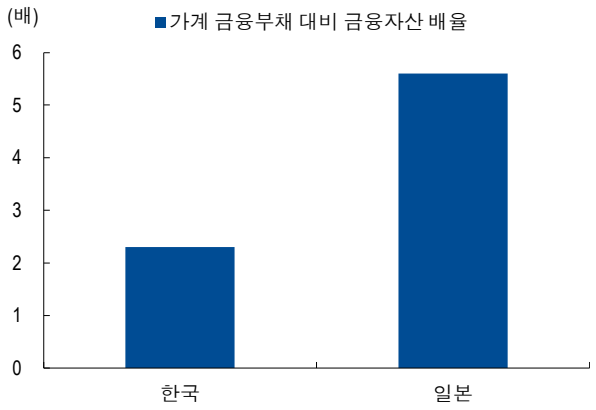
한국 경제의 문제 2) 가계 금융자산 부족

금융활성화 정책

또다른 문제는 가계의 고령화 대비 부족이다. 일본은 1990년대 후반에 가계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이 3배를 넘겼고 지금은 5배를 넘겼다. 반면, 한국은 2배 수준이다. 일본은 가계가 자산을 늘린 상태에서 고령화 충격을 감당한 반면, 한국은 자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충격을 흡수해야 한다(그림3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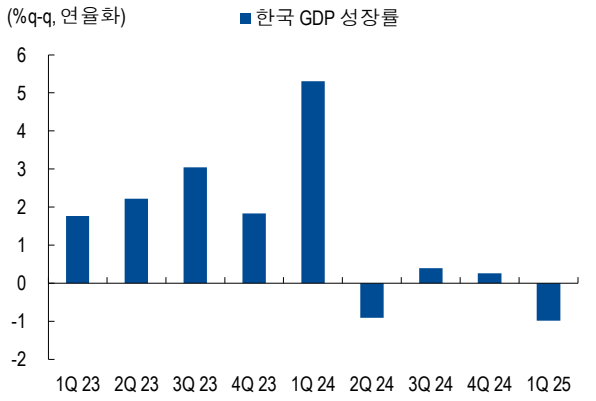
역으로 접근하면, 향후 국내 정책이 해당 문제 수습에 주력할 확률이 높다.
첫째, 금융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계자산 증식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둘째, 한국은행이 거의 명확하게 밝혔듯이 적극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년 동안, 분기별 성장률이 0%대에 머물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하의 시차를 감안하면 올해 4분기 이후에는 국내 경기 반등 가능성이 높다(그림35,36 참조).
셋째, 산업경쟁력 개선을 위한 지원이 예상된다. 2024년 국내 벤처투자 금액은 2021년 대비 25% 감소했다(그림37 참조). 하반기 이후에는 방향이 바뀌면서 벤처투자로 자금 확대가 예상된다. 벤처투자 자체가 산업경쟁력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투자에서 결실을 낸 기업이 수 년 뒤에 의미 있는 규모로 성장했다.

그림34. 일본과 비교할 때, 한국의 고령화 대비가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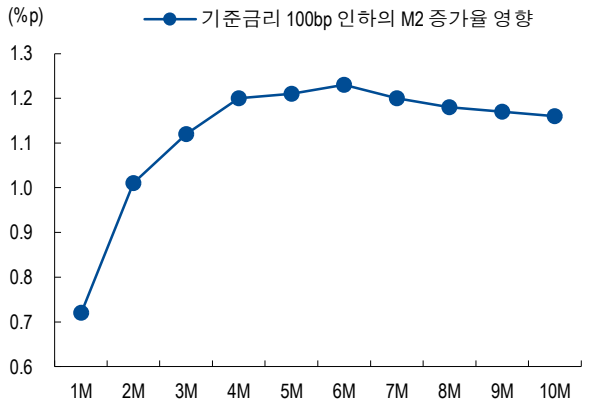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일본은행,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5. 지난 1년간, 한국 성장률 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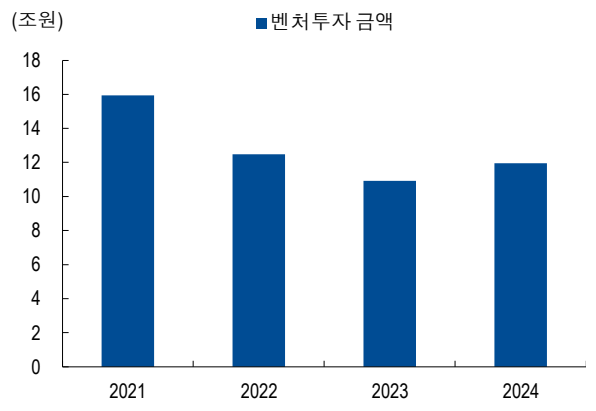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6. 기준금리 인하는 4~5개월 뒤에 효과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7. 3년 전과 비교할 때, 벤처투자 금액 25% 감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II. 전망 테이블/글로벌 경제지표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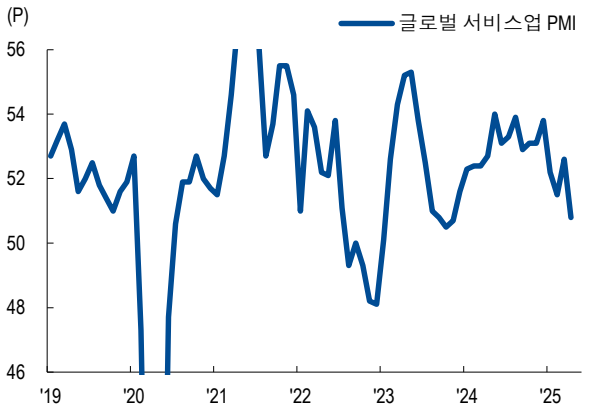
	2025				2026				2025	2026
	1Q	2Q	3Q	4Q	1Q	2Q	3Q	4Q	연간	연간
글로벌GDP (연율화)	2.3	2.1	1.8	1.6	1.8	2.1	2.2	2.3	2.2	2.3
미국GDP (연율화)	-0.3	1.7	1.5	1.3	0.7	2.3	2.6	2.0	1.5	1.6
미국GDP (전년대비)	2.0	1.7	1.3	1.0	1.3	1.5	1.7	1.9	1.5	1.6
미국CPI (전년대비)	2.7	2.7	3.2	3.2	2.9	2.9	2.6	2.5	3.0	2.7
중국GDP (전년대비)	5.4	4.3	4.2	4.1	4.0	4.1	4.1	4.2	4.4	4.1
유럽GDP (전년대비)	1.2	0.9	0.8	0.9	1.0	1.1	1.2	1.3	0.9	1.2
한국GDP (전년대비)	-0.1	0.5	1.2	1.6	2.1	2.0	1.3	0.8	0.7	1.5
한국GDP (전분기대비)	-0.2	0.4	0.8	0.7	0.2	0.3	0.3	0.2	0.7	1.5
한국수출 (전년대비)	-2.1	-4.0	-7.0	-3.0	1.0	2.0	4.0	5.0	-4.0	3.0
한국CPI (전년대비)	2.1	2.4	2.4	2.3	2.0	1.9	2.0	2.3	2.3	2.0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4월 글로벌 제조업 PMI는 49.8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4월 글로벌 서비스업 PMI는 50.8



자료: LSE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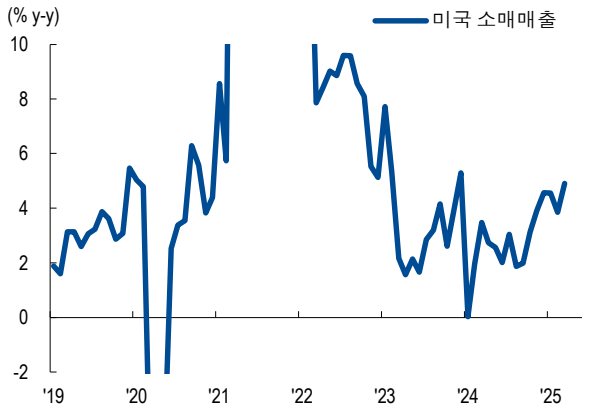
4월 미국 실업률은 4.2%

자료: LSE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4월 미국 임금 상승률, 전년대비 +3.8%

자료: LSE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3월 미국 소매매출 증가율, 전년대비 +4.9%



자료: LSE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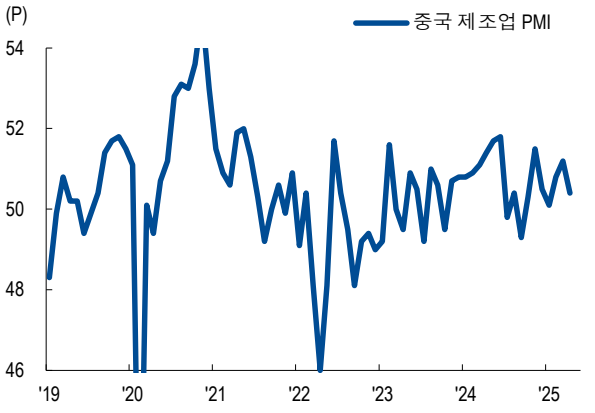
3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대비 +2.4%

자료: LSE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4월 미국 ISM 제조업 PMI는 4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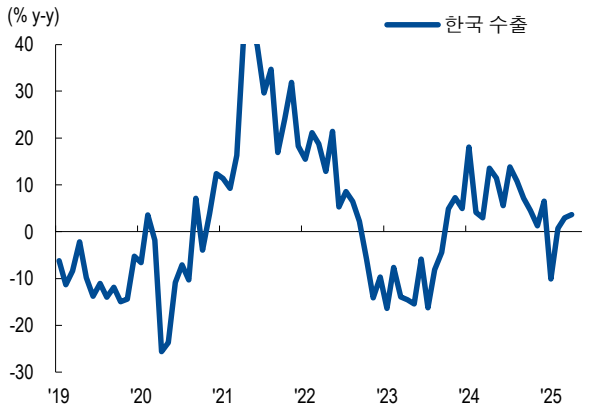
자료: LSE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4월 중국 제조업 PMI는 50.4



자료: CEIC,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4월 한국 수출 증가율, 전년대비 +3.7%



자료: LSE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3월 일본 공작기계 수주 증가율, 전년대비 +11.4%

자료: LSE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 사항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의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분석한 결과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위해 작성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